

## 삼지사상에 의한 국제지적연맹의 설립 방향 연구\*

### A Study on Establishment Direction International Cadastre Federation based on Samji Thought

박 석 희\*\* · 이 범 관\*\*\*

Park, Seok Hee · Lee, Beom Gwan

####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삼지사상에 의한 국제지적연맹의 설립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론적 토대가 되는 삼지사상이란, “한국지적학회를 통해 지적학의 학문적 체계화를 달성하고, 체계화된 지적학문을 통해 한국의 지적제도를 완성하며, 완성된 한국의 지적제도를 통해 세계의 지적제도를 선도하려는 원영희의 사상”으로 보았다. 이상과 같은 삼지사상을 이론적 토대로 하여 국제지적연맹의 설립 방향을 제시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지적연맹의 설립 목적은 일 필지인 토지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인류의 발전과 평화로운 삶에 기여하는 데 있었고 둘째, 국제지적연맹의 설립 방법은 한국이 주도하여 설립한 국제지적학회를 국제지적연맹으로 성장·발전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셋째, 국제지적연맹의 주요 설립 내용으로는 일 필지인 토지에 대한 인간과의 관계인 지적활동과 지적현상에 대한 각국의 개별성을 접목하여 국제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일 필지인 토지에 대한 국가별 배타적 경영으로 인한 영토분쟁, 인류와 모든 생물의 생존을 위협하는 땅의 포장 문제, 국가별 정치지도자의 성향에 따라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지적관리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인 기준 마련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삼지사상, 국제지적연맹, 지적, 지적학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propose an establishment strategy for International Cadastre Federations by Samji thought. The Samji thought, which the most important theoretical foundation in the progress of this study, was considered “Won, Young-Hee’s thought to achieve the academic systematization of Cadastrlogy through the Korean Society of Cadastre, complete a Cadastral system in Korea through systematized Cadastrlogy, and lead the global Cadastral system through the completed Korean Cadastral system.” The results of the study that proposed the establishment strategy for the International Cadastre Federations with the Samji thought as above as a theoretical foundation are as follows: First, the purpose of the establishment of the International Cadastre Federations wa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and peaceful survival of mankind through the efficient management of land as a parcel. Second, it turned out that what is the most desirable for establishing International

\* 본 연구는 2022년 주저자의 석사학위논문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여 수정·보완한 것임.

\*\* 주저자, 정회원·경일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지적학 전공(E-mail: -waterpark-@hanmail.net)

\*\*\* 교신저자, 정회원·경일대학교 부동산지적학과 교수(E-mail: lbg4338@hanmail.net)

Cadastre Federations is to grow it up based on it established by the initiative of Korea. Third, as for the main contents of the establishment of the International Cadastre Federations, presenting an international alternative, in combination with the individuality of each country, concerning Cadastral activity and Cadastral phenomenon, which are the human relationship to the land that is one parcel and resolving territorial disputes by country over land, which is one parcel and the issues of land pavement that threaten the survival of mankind would establish international standards to guarantee the sound 'right to breath' for the land.

Keywords : Samji Thought, International Cadastre Federation, Cadastre, Cadastrlogy

## 1. 서 론

현대 사회는 산업화, 국제화, 정보화 등 다양한 요인들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급속하게 변화와 발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폐쇄된 사회의 비대면(untact) 활동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소셜 네트워킹시스템(SNS) 등을 통해 국내는 물론, 지구촌을 하나의 공동체로 소통하는 국제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현대 사회가 정보화 사회로 변화되면서 정치와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문화 산업 예술 학문의 영역까지도 우리의 지구촌을 하나의 공동체로 연결시키고 있어, 개별 국가 간의 물리적인 경계에 대한 인식은 점점 퇴색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 가운데 의학과 예술분야의 세계화는 그 전과 속도가 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백신 관련 '국제학회', '국제연맹', '국제기구', '국제협회' 등이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방탄소년단(BTS) 등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SNS를 통해 세계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이처럼 국제화 사회는 강한 정보력을 바탕으로 개인과 개별 국가의 독창적인 다양한 능력과 가치를 세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에서 지적학은 대한민국이 창조한 대표적인 분과 학문으로서, 정보화 시대를 맞아 그 가치를 국제 사회와 공유할 필요성이 크게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다. 지적학에 대한 연구 활동이 진행된다면 필수로 인간과 토지와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지적활동과 지적현상이 단순한 개인적인 세금 문제, 소유권 분쟁을 해결하는 차원이 아닌, 인류의 질병과 재앙을 예방하고, 대처하는 가장 기초적이며, 중요한 학문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상과 같은 학문적 인식은 본 연구자들의 사고와 행동에 있어서도 지적에 대한 미시적인 제도관과 학문관보다도 거시적인 미래지향적인 제도관과 학문관을 갖게 된 것이 본 연구를 수행하게 된 배경이 된다.<sup>1)</sup> 특히,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19의 원인을 지구의 온난화 현상에서 찾고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자들은 그러한 주장에 동감하면서 지구의 온난화의 주된 원인은 지표면의 포장 문제에서 비롯되는 일 필지에 대한 지적문제, 농촌형 지목이 도시형 지목으로, 1차원 지목이 2차원 지목으로 변경되면서 나타나는 지표에 대한 포장 문제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 국가들이 지적제도와 지적학문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에는

1) 지적제도나 지적학문이 세지적과 법지적의 한계를 벗어나 다양한 인간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는 정보지적으로서 빅데이터(bicdata)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인간 삶의 방향과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방향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연구해야 하며, 지적제도와 지적학문은 그 연구 결과와 항시 궤적을 같이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지적제도와 지적학문으로는 인간의 삶의 방향과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역할을 하기에는 다양한 한계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지적관련 국제기구의 필요성과 설립의 절박함을 느낀 것이 본 주제를 선정하고 연구를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상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지적관련 기구의 설립 방향으로 한정하고, 주된 사상과 이론은 지적학의 창시자인 삼지 원영희의 삼지사상을 이론적 토대로 하여 가칭 ‘국제지적연맹’에 대한 설립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삼지 원영희 선생이 출생한 1915년 12월부터 2022년 11월 현재까지로 하고, 공간적 범위는 한국, 일본, 대만, 중국으로 하며, 내용적 범위는 삼지사상에 의한 국제지적연맹의 설립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접근방법은 삼지사상의 정립과 각국의 지적제도가 당면한 문제를 도출하기 위해 역사적 접근방법을 사용하고, 조사방법은 문헌조사법과 인터넷조사법을 병행하며, 분석방법은 기술적(記述的) 분석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삼지사상과 관련된 선행 연구 동향을 검토한 결과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sup>2)</sup>, 삼지 원영희의 사상을 도출할 수 있는 관련 문헌들은 다수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3)</sup> 국제지적연맹을 비롯한 지적에 관련된 국제기구에 대한 연구 또한 매우 부족하지만, 타 학문분야의 국제조직에 대한 연구는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4)</sup> 따라서 본 연구는 원영희의 삼지사상을 토대로 국제지적연맹의 설립 방향을 제시하는 최초의 연구로서, 선행 연구들과는 차별성과 독창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 2. 삼지사상과 연맹의 일반적 고찰

### 2.1 삼지사상의 일반적 고찰

#### 2.1.1 삼지사상의 개념

삼지사상이란 일반적으로 삼지 원영희의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삼지 원영희와 사상의 개념이 무엇인가를 규명하기 위해 삼지 원영희와 사상을 구분하여 먼저 각각의 개념과 삼지사상의 개념을 고찰하고자 한다.

삼지 원영희는 세계 최초로 지적학을 제기하여 오늘날 지적학문이라는 독보적인 분과학문분야를 개척한 지적학자이다. 삼지는 지적학자인 원영희의 아호이다. 원영희의 아호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문헌과 바라보는 이의 관점에 따라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현생에서도, 다음 생에서도, 그다음 생에서도 오직 지적에만 종사하겠다.”<sup>5)</sup>, “세 번 죽어도 지적을 위하여 죽는다.”, “세 번 죽어도 지적에서 죽겠다.”, “세 번 죽어도 지적에 죽는다.” 등 삼지의 의미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점을 보이지만, 해석되는 의미에 있어서는 큰 차이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반해 사상(思想)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사용되는 대상과 분야에 따라 그 개념이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떠한 사물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사고나 생각”, “판단, 추리를 거쳐서 생긴 의식 내용”, “논리적 정합성을 가진 통일된 판단 체계”, “지역, 사회, 인생 따위에 관한 일정한 인식이나

2) 지금까지 삼지사상을 주제로 사용하여 연구된 논문은 “원영희의 삼지사상 연구”와 “삼지사상에 의한 국제지적연맹의 설립 방향 연구” 2편에 불과하다.

3) 리진호, 『지적인 열전』(충북 : 도서출판 우물, 2001), p.77. ; 이진호, 『어느 측량사의 수기』(서울 : 도서출판 에이멘, 1998), pp.41-56. ; 한국지적사랑연구회, 『삼지지적백년사』(대구 : 삼지출판사, 2015), p.67. ; 이범관, “원영희의 지적인생 재조명”, 『한국지적학회지』, 제31권 제3호, 사단법인 한국지적학회, 2015, pp.1-12. ; 김미선·강한빛·박석희·이범관, “원영희의 삼지사상 연구”, 『한국지적학회지』, 제36권 제3호, 사단법인 한국지적학회, 2020, p.115.

4) 국제기구, 국제연합, 국제연맹 등의 검색어로 학술연구정보서비스(www.riss.kr)에 검색한 결과 전문지, 학위논문, 단행본, 보고서 등 다량의 선행 연구가 검색되었다.

5) 한국지적사랑연구회, 상계서, p.77.

견해”를 의미한다. 넓은 의미에서 사상은 인간의 정신적 생활의 내용과 결과까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따라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 사상의 의미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사상을 “인간이 특정 대상물에 대한 시대 지역 사회문화 등에 대해 갖는 일관되고 체계적인 사고관”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상을 토대로 본 연구는 원영희의 일생동안의 사고관을 접목하여 삼지 사상의 개념을 “한국지적학회를 통해 지적학문을 체계화하고, 체계화된 지적학문을 통해 한국의 지적제도를 완성하며, 완성된 한국지적제도를 통해 세계지적제도를 선도하려는 원영희의 사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 2.1.2 삼지사상의 내용

본 연구는 삼지사상을 “한국지적학회를 통해 지적학문을 체계화하고, 체계화된 지적학문을 통해 한국의 지적제도를 완성하며, 완성된 한국지적제도를 통해 세계지적제도를 선도하려는 원영희의 사상”으로 보았다. 이를 토대로 삼지사상의 구체적인 의미를 크게 대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삼지사상은 ‘국제지적제도의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원영희의 사상’이다. 둘째, 삼지사상은 ‘지적제도의 발전은 지적학문을 토대로 이루어야 한다는 사상’이다. 셋째, 삼지사상은 ‘지적학문의 체계화는 한국지적학회를 통해 가능하다는 사상이다.’ 넷째, 삼지사상은 ‘국제지적제도의 발전은 결국 한국이 주도해야 하며, 그것도 한국지적학회의 학술활동 여부에 달려 있다는 사상’이다.

이러한 삼지사상은 삼지 원영희가 일생동안 지적관계, 지적업계, 지적학계를 넘나들며, 다양한 연구와 경험을 축적하면서 정립된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sup>7)</sup>

### 2.1.3 삼지사상의 특성

삼지사상이란 용어는 삼지 원영희의 사망 이후 지적학계에서 소수 연구자들이 삼지 선생을 추모하기 위한 연구를 시작하면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sup>8)</sup> 이러한 배경에는 지적이라는 용어가 정부조직에서 점점 사라져가는 안타까운 현실이 크게 작용되었다. 삼지 원영희는 지적제도에 어떤 매력이 있기에 한 번도 아닌 세 번의 생이 주어진다면 모두 지적에 종사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강한 의문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1976년 한국지적학회가 창립된 배경이나, 1977년 전문대학에 지적과가 개설된 배경에는 모두 삼지사상이 내재되어 있었다. 일생동안 삼지 원영희의 지적활동 무대인 2지역 3국면<sup>9)</sup>을 토대로 삼지 원영희의 사상에 대한 특성을 제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삼지사상은 국가의 구성요소인 국민, 국토, 주권 가운데 하나인 국토를 물리적인 대상으로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1필지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둘째, 삼지사상은 내용적인 대상은 1필지와 인간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지적활동과 지적현상이라는 것이다. 셋째, 삼지사상은 국제지적제도의 완성을 목표로 하는 특성을 나타낸다. 넷째, 삼지사상의 목표는 한 나라의 국토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지적활동을 효율화하기 위한 표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6) 장은숙, “퇴계전서로 본 이황의 토지사상 연구”, 『한국지적학회지』, 제32권 제2호, 사단법인 한국지적학회, 2016, p.53.

7) 김미선·강한빛·박석희·이범관, 전계논문, pp.120-123.

8) 한국지적사상연구회, “삼지 교수의 남·북한 지적여행 제조명”, 『삼지지적백년사』(대구 : 삼지출판사, 2015), p.77.

9) 원영희의 일생은 북한생활과 남한생활을 토대로 2지역으로 나누고, 지적관계 종사, 지적업계 종사, 지적학계 종사 등을 합해 3국면으로 정리되고 있다(김미선·강한빛·박석희·이범관, “원영희의 삼지사상 연구”, 전계서, pp.120-125.).

## 2.2 연맹의 일반적 고찰

### 2.2.1 연맹의 개념

연맹(聯盟)이란 ‘일반적으로 공동 목적을 가진 조직, 공동의 목적을 가진 단체, 공동의 목적을 가진 국가가 서로 돕고 행동을 함께 할 것을 약속함 또는 그런 조직체’ 등을 광범위하게 의미하고 있다.<sup>10)</sup> 연맹과 비슷한 의미로 혼동하여 사용되고 있는 ‘기구’, ‘협회’, ‘연합’ 등의 용어와는 추구하는 목적과 역할 측면에서 구별된다.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는 관점과 해석하는 입장에 따라서 ‘연맹’, ‘기구’, ‘협회’ 등이 상호 유사한 의미를 나타낸다고 볼 수도 있지만, 엄밀하게 용어의 의미를 해석하여 보면, 상당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 2.2.2 연맹의 특성

이상에서 제시된 개념을 토대로 연맹의 특성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sup>11)</sup> 첫째, 연맹 설립의 주체는 단체나 국가가 된다. 즉, 공동의 목적을 가진 조직체이어야 하며, 개인은 연맹의 주체가 결코 될 수 없다. 둘째, 연맹은 공동이 추구하고자 하는 뚜렷하고, 명확한 공동의 목표가 있어야 한다. 즉, 연맹 설립을 통해 어떠한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서로 돕고, 행동할 것을 다짐하고, 약속해야 한다. 셋째, 하나의 조직과 단체로는 연맹을 설립할 수 없다. 연맹은 다수의 단체와 기관, 국가 등이 설립 취지에 동의하고,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며, 다양한 활동과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체

이기 때문이다. 넷째, 연맹은 반드시 국제적인 규모를 갖출 필요는 없다. 복수의 단체나 여러 국가가 참여하면, 국제적인 연맹이 될 수 있으며, 반면 국내에서도 연맹 설립을 위한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면, 언제든지 연맹 설립이 가능하다. 다섯째, 연맹을 설립함에 있어서는 영리법인으로의 설립뿐만 아니라, 비영리법인으로도 연맹 설립이 가능하다. 연맹의 설립 목적과 사업내용, 사업 범위에 따라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나눌 수 있다. 여섯째, 연맹은 체계화된 구조와 절차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수의 조직체가 하나로 모인 것이 연맹이지만, 개별 조직체가 상호 이해와 양보, 협력 없이 각자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마음대로, 그리고 무질서하게 활동을 수행한다면, 연맹이 본래부터 추구하고자 했던 공동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없다.

### 2.2.3 연맹 설립의 동향

국제사회에 있어서 연맹을 설립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가정책에 부응하고, 단체나 국가가 공동의 목표를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함이다. 연맹 설립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쉽게 이룩할 수도 있으며, 만약 법인으로 등록되면, 국가로부터 적지 않은 예산지원 등을 받는 데 있어서도 원활하고, 연맹 조직체 상호 간 폭 넓은 정보교류, 인적 물적 교류 등으로 인해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기 때문이다.<sup>12)</sup>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연맹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국제단체의 설립 동향을 보면 다음과 같다.<sup>13)</sup> 이처럼 연맹은 주로 스포츠

10) 한글학회, 『우리말 큰사전』(서울 : 어문각, 1992), p.2941.

11) 박석희, “삼지사상에 의한 국제지역연맹의 설립 방향 연구”, 경일대학교 대학원, 2022, pp.23-24. 참고작성.

12) 상계논문, p.24.

13) 국제축구연맹, 국제빙상연맹, 국제노동조합연맹, 국제신문연맹, 국제기자연맹, 국제제조연맹, 국제로봇연맹, 국제코치연맹, 국제태권도연맹, 국제농구연맹, 국제빙상경기연맹, 국제수학연맹, 국제물슬레이연맹, 국제요트연맹, 국제사격연맹, 국제유도연맹, 국제당수도연맹, 국제테니스연맹, 국제승마연맹, 국제청소년연맹, 국제스포츠클라이밍연맹, 국제이스포츠연맹, 국제교육연맹, 국제배구연맹, 국제브라질리언연맹, 국제जू짓스연맹, 국제근대5종경기연맹, 국제협동조합연맹, 국제청소년문화교류연맹 등이 활동하고 있다.(2022.12.5. 네이버에서 국제연맹으로 검색한 결과임).

종목에 따라 종목별로 국제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규정, 대회 개최지 설정 등 공동 목적으로 설립되어 활동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와 유사한 성격으로 협회라는 명칭으로 활동하는 단체의 동향을 보면 다음과 같다.<sup>14)</sup> 이처럼 국제사회에서 협회라는 명칭으로 활동하는 단체는 대부분 특정분야의 기능을 가진 전문가들이 자신들의 전문적인 특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협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학회라는 명칭으로 활동하는 학회는 국제지적학회, 국제암학회, 국제심리상담학회, 국제장가학회 등 다양한 학문별로 설립되어 주로 학술적 교류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회가 특정 분야의 학술교류를 목적으로 한다면, 협회는 특정 분야의 기능을 가진 전문가들이 업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하였으며, 연맹은 학회와 협회라는 질충적인 목적을 수행하면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국제지적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을 위한 연맹 설립의 필요성

본 장은 제2장의 이론적인 토대를 배경으로 한국의 일필지에 대한 정보를 물리적·권리적·가치적·이용규제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지적제도에 대한 거시적인 측면에서 토지등록제도의 문제점을 행정조직 법 유형 추구하는 목표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이를 통해 국제지적제도의 개선을 위한 주체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 3.1 한국지적제도의 문제점

이상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한국지적제도의 문제점을 거시적인 토지등록제도라는 측면에서 물리적·권리적·가치적·이용규제적 측면에서 제시하고자 한다.<sup>15)</sup> 먼저 물리적 측면에서 한국의 지적제도는 일 필지를 등록단위로 하여 토지소재지번·지목·경계·면적·좌표 등을 등록하기 위해, 중앙부처인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지적소관청을 통해 지적공부로 각종 정보를 조사·등록·공시 관리하고 있다. 권리적 측면에서는 일필지에 대한 권리관계를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사법부가 부동산등기부를 통해 각종 권리정보를 조사·등록·공시 관리하고 있다. 가치적인 측면에서는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국토교통부가 일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확인서를 통해 토지에 대한 가치적 현황을 조사·등록·공시 관리하고 있다. 일필지에 대한 이용·규제적 현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조사·등록·공시 관리하고 있다.<sup>16)</sup> 이상과 같이 한국의 지적제도는 일필지에 대한 각종 정보를 행정조직 측면에서 다양한 정부조직이 관여되어 있고, 법적 측면에서도 다양한 유형의 개별법이 관여되어 있으며,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지적제도가 추구하는 목적도 개별법에 따른 목적에 따라 구분되어 다양하게 나타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 국제라이온스협회, 국제항만협회, 국제키네시오테이핑협회, 국제물류협회, 국제필라테스협회, 국제제과디저트협회, 국제퍼스널협회, 국제문화협회, 국제질병감독협회, 국제원예가협회, 국제항공운송협회, 국제항공수송협회, 국제선급협회, 국제기드온협회, 국제민간운송협회, 국제침구사협회, 국제축구협회 평의회협회, 국제바리스타협회, 국제항공협회 등이 활동하고 있다(2022.12.5. 네이버에서 국제협회로 검색한 결과임).

15) 본 연구에서 한국의 지적제도를 크게 물리적·권리적·가치적·이용규제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실태를 고찰한 것은 지적의 개념을 제도적 측면에서 거시적으로 분류한 것을 근거로 활용한 것임(이법관, 『지적학원론』(대구: 삼지출판사, 2006). p.1.

16) 이법관, “지적제도의 발전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학회지, 제12권 제2호, 사단법인 한국지적학회, 2000, p.36.

## 3.2 외국지적제도의 문제점

### 3.2.1 일본

일본의 지적제도 역시 거시적인 토지등록제도라는 측면에서 물리적 권리적 가치적 이용규제적 측면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물리적 측면에서 일본의 지적제도는 일필지를 등록단위로 하여 토지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좌표 등을 등록하기 위해, 부동산등기법과 국토조사법을 근거로 법무성이 부동산등기부와 도면을 통해 각종 정보를 조사 등록 공시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물리적 측면과 권리적 측면이 통합되어 관리되고 있다. 가치적인 측면에서 일본의 지적제도는 지가공시법을 근거로 국토교통성이 일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 등록 공시 관리하고 있다.<sup>17)</sup> 일필지에 대한 이용 규제적 현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를 조사 등록 공시 관리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일본의 토지등록제도는 조직적인 측면이나 내용적인 측면에서 한국과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적행정과 지적측량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성 등기관 및 토지가옥조사사의 경우 분할측량을 단순히 측량을 통해 새로운 지번과 면적 등을 등록하는 정도로 생각하여 분할선과 같은 토지경계선이 토지소유자의 토지소유권이 담겨져 있는 지적의 의미 같은 인식이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원인은 1960년대 지적과 등기의 일원화로 구 토지대장이 등기부의 표제부로 통합되면서 지적에 대한 이념이 점점 상실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일본 역시 한국과 같이 부동산등기업무에 대한 법적 공신력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일본에서도 토지등록제도에 자체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초래되고 있다.

### 3.2.2 대만

대만의 지적제도 역시 거시적인 토지등록제도라는 측면에서 물리적 권리적 가치적 이용규제적 측면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물리적 측면에서 대만의 지적제도는 일필지를 등록단위로 하여 토지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좌표 등을 등록하기 위해, 토지법을 근거로 내정부의 공적 장부에 의해 각종 정보를 조사 등록 공시 관리하고 있다.<sup>18)</sup> 따라서 물리적 측면과 권리적 측면이 일본과 같이 통합되어 관리되고 있다. 대만은 한국과 같이 일본 식민지배 하에서 지적제도와 등기제도가 시행되어 왔으나, 종전으로 인한 정부수립은 제도 개혁을 필연적으로 수반하게 되었고, 토지의 공시제도 역시 변혁을 가져오게 되었다. 특히, 당시 삼민주의(三民主義) 사상을 국시로 하고 있어 ‘평균지권’이라는 토지개혁의 기본 사상은 지적제도와 등기제도를 통합하는 가장 큰 계기가 되었다. 삼민주의 사상은 국민 생업에 안전을 구하고, 국가 전체 이익을 얻는다는 이론적 근거에 따라 제일 먼저 토지법의 시행을 서둘렀다. 이는 토지재분배정책의 불가능성이 토지개혁과 이어진 토지공시제도의 일원화를 도모했다고 볼 수 있다.

### 3.2.3 중국

중국의 지적제도 역시 거시적인 토지등록제도라는 측면에서 물리적 권리적 가치적 이용규제적 측면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물리적 측면에서 중국의 지적제도는 일필지를 등록단위로 하여 토지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좌표 등을 등록하기 위해, 토지법을 근거로 국토자원부가 공적인 장부와 도면을 통해 각종 정보를 조사 등록 공시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물리적 측면과 권리적 측면이 통합되어 관리되고 있다. 중국의 지적제도는 여전히 낙후되어 있다. 따라서 국토 전반에 걸쳐 모든

17) 상계논문, p.36.

18) 상계논문, p.36.

토지에 대한 필지별 정보가 대장과 도면으로 공시되어 있지 못하고 또한, 지역별로 국토에 대한 표준화 된 관리 모형을 가지고 있지도 못하다.

### 3.3 국제지적연맹 설립의 필요성

제2절에서 거시적인 측면에서 각국의 토지등록 제도를 물리적 권리적 가치적 이용규제적 측면에서 실태를 검토한 바와 같이 각국의 지적제도는 장단점을 논하기 이전에 각국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개별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각국의 국제지적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들 제도에 대한 실태를 조사 분석할 주체가 필요하다. 주체가 구심점이 되어 국제지적제도의 효율적인 모형을 제시하고 발전을 선도해야 할 것이다. 주체는 “어떤 단체나 물건의 주가 되는 부분” 또는 “사물의 작용이나 어떤 행동의 주가 되는 것”을 일컫는다. 따라서 지적학 및 국제지적제도의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국제지적제도의 개선을 위한 주체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지속가능한 지적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세계적으로 지적학 및 지적제도의 건전한 발달과 국토의 효율적인 개발, 국민들의 쾌적한 삶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제지적연맹을 설립하기 위한 주체가 필요하며, 그 주체가 대한민국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지적학은 대한민국이 창조한 세계 유일의 분과 학문분야이다. 그러나 국내 학문분야의 배타성과 업계, 관계의 비정착으로 인해 한국의 지적계는 활발하게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별로 개별성이 강한 영토문제를 국가별로 활동하는 지적관련 단체를 하나의 국제단체로 규합하기 위한 여건이 가장 잘 조성된 국가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이다. 그간 국제사회에서 지적인들이 지적활동을 통해 개별 국가의 발전과 인류의 평화로운 삶이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여러 조직체나 국가들은 오래전부터 국제적으로든, 또는 국내적으로든 국제지적기구의 필요성

을 절실하게, 끊임없이 제기하여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 각국의 발전된 지적학과 지적제도를 장려하고, 세계 지적인들에게 발전된 제도와 학문을 권장하기 위한 덕업상권(德業相勸), 각국의 지적학과 지적제도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경종을 울리는 과실상규(過失相規), 각국의 지적문화를 존중하고, 발전된 제도에서 배우고 낙후된 지적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예속상교(禮俗相交), 각국의 지적학과 지적제도가 위기를 맞으면,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환난상휼(患難相恤)이라는 정신을 삼지사상과 접목할 수 있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 4. 국제지적연맹의 설립 방향

### 4.1 국제지적연맹의 설립 목적

국제지적연맹은 개별성이 강한 각국의 지적제도에 대한 발전적인 모형을 가지며, 또한 표준적인 모형으로서 각국의 경제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세계 지적관련 산업의 지도적 조정적 기구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제지적연맹은 회원국의 지적학과 지적제도 등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선진 지적학문을 회원국에 보급함으로써, 지적학의 학문적 체계화와 지적학의 정체성 확립, 지적제도의 확립, 회원국의 권익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역할을 하여야 한다. 비정부 민간단체로서, 원영회의 삼지사상과 대한민국의 전통 품앗이, 두레, 향약의 기본 사상을 이념적 토대로 삼고, 세계 각국의 지적학 및 지적제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돕기 위하여 한국이 연맹의 설립 주체가 되어 한국 지적학의 우수성과 지적제도의 발전모형을 널리 알리고, 보급함으로써, 세계 지적분야의 발전뿐만 아니라, 인류의 생존과 삶의 질을 제고하는 데 설립 목적이 있다.



## 4.2 국제지적연맹의 설립 방법

본 연구는 연맹의 설립 방법을 크게 상향식 설립 방법과 하향식 설립 방법으로 구분하여 고찰하기 한다. 첫째로 상향식 설립 방법은 각국의 일정한 소수 회원사들이 국제기구 설립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발기인 총회를 통해 국제적인 조직이나 기구를 먼저 만드는 방법이다. 다양한 각국의 기관, 단체, 기구, 협회, 학회, 대학 등의 상호 협력 없이 소수의 국가가 새로운 연맹조직을 먼저 설립하고 이들 조직이 주체가 되어 회원을 확장하는 방법이다. 둘째는 하향식 설립 방법으로 지적과 관련하여 기존에 활동 중인 단체, 기구, 학회 등 상호 간의 협력에 의해 공동의 목표 달성에 대한 뜻을 모아 연맹을 확장하는 방법이다. 예컨대, 국제지적학회, 국제측량사연맹(FIG), 국제지적사무소 등과 같은 기존의 지적관련 국제단체 등이 하나의 연맹으로 통합하여 재탄생하는 방법이다.

둘째로 하향식 설립 방향은 이 방법은 국제적인 기구를 설립하는 방법으로서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는 방법이다. 왜냐하면 국제사회는 언어와 민족, 종교 등 다양한 개별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상적인 방법이나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방법이다. 셋째는 절충적인 방법으로서 상향식 방법과 하향식 방법을 적절하게 적용하는 방법으로 거대조직을 기구를 설립하는 때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상에서 제시된 설립 방법 가운데 하나인 상향식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한국이 주도하여 국제적인 기구를 창립하기란 많은 시간과 자원, 그리고 경험, 국제사회의 신뢰성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기존의 한국이 주도하여 설립된 국제지적학회 회원국을 중심으로 회원을 확장하는 방법이 바람직할 것이다. 국제지적학회는 참석회원국이 적으나 오랫동안 20년 이상의 운영경험이 있고, 연맹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학회라는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회원국도 각국의

학계, 업계, 관계가 조화롭게 잘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또한, 회원국이 적어 변화를 시도하기 위한 의사결정도 용이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현재 국제지적학회 회원의 중심국인 한국, 일본, 대만을 상임이사국으로 하여 출발하면 될 것이다. 그럼으로써 삼지사상을 기반으로 한국이 주도하여 설립할 수 있고, 단기적으로 설립이 가능하며, 연맹이 정착되면 본부를 한국에 둘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다.

## 4.3 국제지적연맹의 설립 내용

이상에서 제기된 설립 목적과 설립 방법으로 설립된 국제지적연맹은 인간과 일 필지인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지적활동과 지적현상에 대한 지적문제를 근간으로 하여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지표포장 문제, 영토분쟁 문제까지 확장하여 다루는 지적분야의 유일한 비영리 국제단체가 될 것이다.

땅은 자연물로 우리 생명의 원천이자 인류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유일한 천연자원이다. 이러한 소중한 자원을 인간의 단기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도로포장, 건물신축 등 지표면의 포장이 증가됨으로 인해 비가 내리면 비가 서서히 흡수되어 침투하여 서서히 도랑을 거쳐, 강과 바다로 흘러가야 되나, 포장된 지표면으로 인해 빗물이 지표로 침투하지 못한 채 곧바로 하수구를 통해 강과 바다로 직행함으로 인해 대기순환의 속도를 인위적으로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지표면의 포장으로 인해 지표면 흩들의 호흡이 곤란함으로 인해 땅의 자유로운 호흡을 방해함으로써, 땅의 본래 기능인 자정능력, 자생능력을 상실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이로 인한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폭설, 폭우, 폭염, 지구의 사막화, 신종바이러스 등장 등은 현존하는 인류에 대한 질병, 질환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자연생태계의 파괴로 인한 먹이사슬의 붕괴는 곧, 동 식물의 단종 현상을 유발하며, 이는 결국 치명적인 인간의 종말을 예고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치명적인 인류의 종말을 대비한 지적전문가들의 역할은 이제 세지적, 법지적, 정보지적 제도가 추구하는 목적을 벗어나 각국의 정치, 경제, 관습, 제도 등의 각종 고유문화가 존중되는 새로운 다양한 문화가 접목된 가칭 “문화지적제도”의 창설이 국제지적연맹의 운영과 궤적을 같이 하여야 할 내용이다.

이와 같이 국제지적연맹은 향후에 다가 올 지적에 관련된 수많은 국내 외적 환경변화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지 못할 경우, 그 전략은 실패하게 된다. 따라서 전략의 수립 시 환경변화에 대한 고려는 중요한 요구사항이기도 하다.

## 5.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지적학의 창시자인 삼지 원영희의 사상인 삼지사상에 의한 국제지적연맹의 설립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시간적 범위는 삼지 원영희 선생이 출생한 1915년 12월부터 2022년 11월 현재까지로 하고, 공간적 범위는 한국, 일본, 대만, 중국으로 하며, 내용적 범위는 삼지사상에 의한 국제지적연맹의 설립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한정하였다. 본 연구의 접근방법은 삼지사상의 정립과 각국의 지적제도가 당면한 문제를 도출하기 위해 역사적 접근방법을 사용하고, 조사방법은 문헌조사법과 인터넷조사법을 병행하며, 분석방법은 기술적(記述的)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는 삼지사상을 “한국지적학회를 통해 지적학문을 체계화하고, 체계화된 지적학문을 통해 한국의 지적제도를 완성하며, 완성된 한국지적제도를 통해 세계지적제도를 선도하려는 원영희의 사상”으로 보았다.

국제지적연맹의 설립 방향으로는 첫째, 국제지적연맹의 설립 목적은 비정부 민간단체로서, 원영희의 삼지사상을 연맹 활동의 기본 사상과 이념적 토대로 삼고, 일 필지인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인류의 발전과 평화로운 질 높은 생존에 기여하는 것으로 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국제지적연맹의 설립 방법 중 상향식 설립 방법을 채택하였다. 상향식 설립 방법은 다양한 외부 기관, 단체, 기구, 협회, 학회, 대학 등의 상호 협력 없이 새로운 세력이 중심되어 연맹을 설립하고 확장하는 방법이다. 이 설립방법은 한국이 주도하여 설립한 기존의 국제지적학회를 근간으로 먼저 한국, 일본, 대만을 상임이사국으로 하여 국제지적연맹을 설립하고, 다양한 국가와 단체로 회원을 확장하여 성장 발전시키는 방법이다.

셋째, 국제지적연맹의 설립 내용으로는 일 필지인 토지에 대한 인간과의 관계인 지적활동과 지적현상에 대한 각국의 개별성을 접목하여 국제적인 대안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일 필지인 토지에 대한 국가별 영토분쟁,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땅의 포장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건전한 땅의 ‘호흡권’을 보장하는 국제적인 기준을 정립하는 것 등이다.

## 〈참고문헌〉

1. 강한빛 이법관, “한국 지적제도의 정체성 연구”, 『한국지적학회지』, 제34권 제3호, 사단법인 한국지적학회, 2018.
2. 김미선 강한빛 박석희 이법관, “원영희의 삼지사상 연구”, 『한국지적학회지』, 제36권 제3호, 사단법인 한국지적학회, 2020.
3. 김상규, “국제연맹의 조직과 기능에 관한 현대적 분석”, 『사회과학논총』, 제2권, 1997.
4. 이법관, “지적제도의 발전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학회지』, 제12권 제2호, 사단법인 한국지적학회, 2000, p.36.
5. 이법관, “국제지적학회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학회지』, 제30권 제2호, 사단법인 한국지적학회, 2014.

6. 이범관, “원영희의 지적인생 재조명”, 『한국지적학회지』, 제31권 제3호, 사단법인 한국지적학회, 2015.
7. 이범관, 『지적학원론』, 대구 : 삼지출판사, 2018.
8. 이정빈 황보상원 김감래, “일본의 지적조사 현황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학회지』, 제23권 제2호, 사단법인 한국지적학회, 2007.
9. 이창석 이범관 김홍택, “우리나라 지적공시제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학회지, 제19권 제1호, 사단법인 한국지적학회, 2003.
10. 이현준, “지적제도에 관한 공법적 검토”,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2006.
11. 장은숙, “퇴계전서로 본 이황의 토지사상 연구”, 『한국지적학회지』, 제32권 제2호, 사단법인 한국지적학회, 2016.
12. 장진우 왕유 이범관, “중국 지적제도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학회지, 제24권 제2호, 사단법인 한국지적학회, 2008.
13. 대한지적공사 지적연구원, 『선진 외국의 지적제도 비교 연구』, 2010.
14.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지적백년사』, 2005.
15. 한국지적사랑연구회, 『삼지지적백년사』, 대구 : 삼지출판사, 2015.

(접수일 2022.11.10., 심사일 2022.11.18., 심사완료일 2022.11.30.)